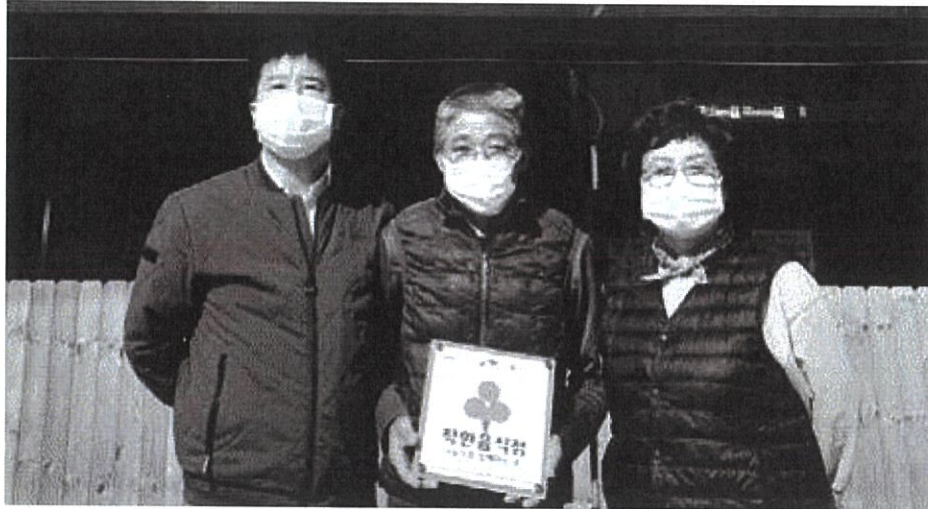


전북제일신문

2021년 4월 20일 화요일 015면 사람들



진안 용담면 '행복사랑플러스' 착한가게 2호점 탄생

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과 가계경제 위축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입금의 일부를 '행복사랑플러스' 사업에 기꺼이 후원한 사업체가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.

19일 용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대표인 윤재준 면장과 전숙이 위원장은 착한가게 2호점인 '정원짜장' 대표 김정권씨에게 '행복사랑플러스' 인증현판을 전달했다.

김 대표는 “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이며,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/진안=박철의 기자